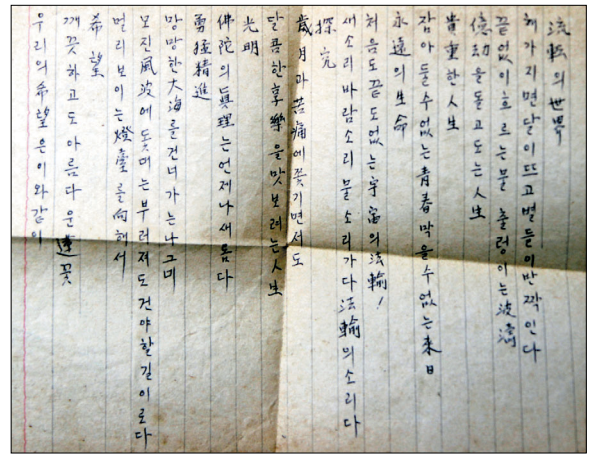


# 손잡을때 어머니 떠올라



삼천사에 자리한 대도행 보살의 사리탑. 성운 스님은 대도행 보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머니 대도행 보살이 남긴 편지에는 출재가와 남녀를 떠나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글이 담겨있다.



목수술을 해 말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이 조원장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조남인 원장과 의료팀. 이들은 16년간 함께 손발을 맞춰 봉사해 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노인요양원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장모님의 추천으로 선업을 쌓기 위해 방생을 하며 불교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보시행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요. 결국 아이도 건강해졌죠. 나중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찾아가니 스님께서 아이 옆에 화엄신장이 지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조 원장이 봉사의 삶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어머니 대도행 보살의 입적이 계기였다. 어머니의 자비심이 넘치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보니 불교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열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비보시행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낳기도 했다. 조남인 원장은 어머니와의 일화를 털어냈다.

“제가 의사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을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항상 어머니에게 가보면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썼기 때문이었죠. 젊었을 때는 ‘다른 집은 자식 잘 되라고 흘려서까지 자식 앞으로 하는 세상인데, 우리 집은 반대’라며 불만이 많았죠.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시 조남인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대도행 보살은 딸이 낙태수술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다.

조남인 원장은 “수많은 태아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 업을 자신이 대신 풀어주길 바라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이 의료봉사에 나서게 된 것도 어머니의 49재에서 덕송총림 방장 설경 스님의 법문이 결정적이었다. 대도행 보살과 생전에 인연이 있는 설경 스님은 조 원장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큰 스님께서 ‘도독질 한 업과 착한 일을 한 업은 상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어머니께서 행하신 선업

은 그 업대로 어머니에게 가서 좋은 곳으로 이미 가셨다고 하시면서 자식과의 업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머니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내립니다. 용서할 것이 있나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부터 저절로 봉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조 원장은 만학도의 마음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다. 그길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던 딸에게 병원을 물려주고, 봉사의 길로 나섰다.

“처음에는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픈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남편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 열심히 하려고 격려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딸 정인조 씨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보이신 모습은 집안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모님이 계신데 밴쿠버 서판사에서 신도회장을 하실 정도로 목심하시다. 사실 할머니의 법은 그쪽으로 전해졌다”며 웃었다.

정인조 씨는 대도행 보살이 남긴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용맹정진’이라 붙여진 편지에는 ‘불타의 진리는 언제나 새롭다. 망망한 대에는 모진 풍파에 뒤편이 부러져도 건너야 할 길이다. 깨끗하고도 아름다운 연꽃, 우리의 희망은 이와 같다. 남성도 여성도 분별치 말라. 부처님도 보살님도 여기서 생하신다’고 적혀있었다.

성운 스님과 인연으로 재능기부 나서 대도행 보살과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과 인연은 봉사의 길을 발원한 조 원장에게 방향을 제시해줬다. 삼천사 성운 스님은 젊어서부터 대도행 보살을 어머니처럼

모시며 따랐다. 대도행 보살은 스님들을 시봉하는 한편, 혹여 다른 길로 새지 않을까 스님들이 여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질책도 많이 했다고 한다. 조 원장은 인덕원 노인요양원에 들어서기 전부터 삼천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성운 스님은 “대도행 보살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불법을 따르려고 노력한 한 분”이라며 “자신이 출가해 수행하고 싶었는데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스님을 시봉해 큰 스님으로 만들고자 원을 세우셨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임종 때 활짝 웃는 모습으로 ‘큰 스님이 되어서 널리 부처님 법을 전파해 달라’는 마지막 남긴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스님은 “어머니에 못지않게 조남인 원장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여든의 노구에도 복지시설에도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주변 의사와 간호사들도 개중시켜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게 하는 등 전법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인 원장은 “평소 어머니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 되도록 주변에서 힘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미약하지만 힘 있는 데까지 스님을 도우며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조남인 원장의 가족들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자비보시행의 서원을 세우고 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 도 불심을 유지하며 생활한다고 한다. 봉사를 통해 급술이 더욱 좋아진 부모님을 보며 딸도 존경스럽고 좋다는 말을 건넨다. 치과 인턴과정 중인 조남인 원장의 손녀딸도 요양원을 찾아 봉사를 한다. 뒤돌아 나오는 길, 연꽃향내가 그윽하게 감도는 있음을 느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전법일기

### 눈 내리는 날에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연거푸 눈이 내려서 사방이 온통 은빛 설국이다. 강원도 산간마을처럼 폭설은 아니지만 모처럼 겨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일정을 취소하고 설경을 감상하며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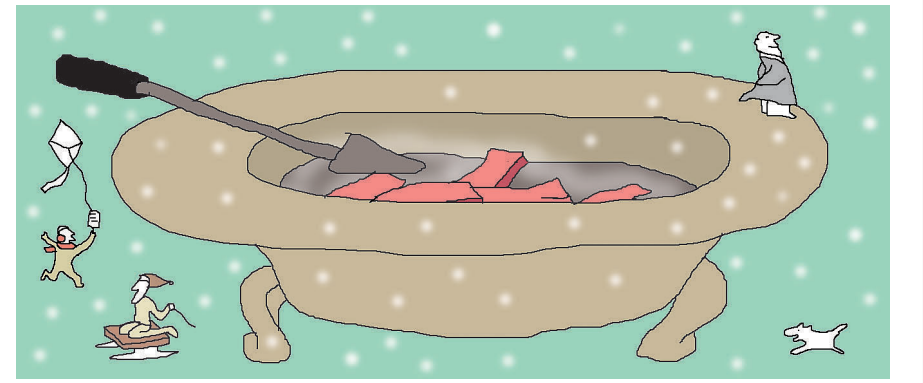
이번에는 마당에 켜켜이 쌓인 눈도 치우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다. 아무런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설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회가 없는 날은 며칠이고 그냥 지낸다. 오늘 아침에는 간밤에 먹이를 찾아 나선 고양이의 발자국만 선명한 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천지간에 가득한 순백의 설경을 즐기는 것도 시골 사는 사람의 복리이다.

원통법수선사의 어록에 보면 눈 내리는 날에 ‘세 종류의 낱자’가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가장 못한 수행자

려했더니, 그해 겨울은 절 뒷길에 아이들의 눈썰매장으로 전용되었다. 올해도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눈썰매를 타러 올 것이다.

여기는 어린이 체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정착할 때 농촌 사찰의 장점을 살려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절에 왔을 때 재미있는 놀이가 있으면 절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까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텃밭에 모종을 심고 채소를 길러 먹는 즐거움을 알게 하였고, 여름에는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그 즈음 모 방송사의 ‘아빠, 어디가?’ 코너가 인기여서 이



그림·박구원

는 화투가에 둘러 앉아 먹고 떠들면서 놀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먹음 갈아 붓을 들고 시를 지으며, 가장 못한 수행자는 승당 안에서 좌선을 한다고 했다. 눈 오는 날 모든 일을 작파하고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심정이나 나가는 가장 못한 수행자의 대열에 드는 셈이다.

이곳에 처음 오던 그 해 겨울에는 폭설이 자주 내렸던 기억이 난다. 그 겨울 동짓날 아침부터 눈과 한파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고 상수도까지 얼어서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폭설 예보가 있으면 등산에도 대비하고 마을 이장님도 트래क्टर도 예약해 놓는다.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면 절 초입의 길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간지방도 아닌데 이곳에서는 눈을 가까이 보게 된다. 멀지 않은 청주 도심은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렸는데 여기는 기온 차이 때문에 눈발이 내렸다.

지난 해 이맘때는 눈 치우는 일도 힘들어서 뒷길의 제설작업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꼬마들이 방문하여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를 타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날 눈썰매를 여러 개 구해 와서 아이들이 신나게 한 겨울을 즐기도록 배

캠핑체험은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여기는 계곡이 없어서 여름이면 큰 수조를 만들어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하기 체험을 한다. 올 해 가을에는 다섯 가정에 심은 고구마를 수확했는데 온 가족들이 팔을 걷고 밭이랑을 따라서 일하는 풍경이 참정겨웠다.

겨울에는 연 날리기와 눈썰매다. 전통 연을 친구들과 만들어보는 과정도 흥미 있지만 뒷동산에 올라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재미를 더 즐겨원한다. 모닥불 피워 놓고 고구마 구워먹는 별미도 아이들이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는지 해마다 문의가 쇄도한다. 특히나 남자 아이들은 패를 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뛰어 다니는 것을 보면 동산에는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 없나보다. 이번 가을에는 숲에 들어가서 도토리도 따먹고 주웠으며, 밤나무 아래서 알밤 쪄는 일에도 정신을 쏟았다.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런 놀이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시골 사찰의 이점이다.



현진 스님 (청원 미야사 주지)

## 새해새날 자비망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강남 양산사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후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우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경 회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원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범현	사정원장 석범경
원로회장 석우공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원로위원 석우경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지혜

#### 총무원

- 총무원장 석혜주
- 사무총장 석혜주
- 부원장 석용암
- 총무부장 석운오
- 교무부장 석성오
- 사회부장 석현오
- 재무부장 석성현
- 동원부장 석범원
- 정보부장 석범주
- 행사부장 석관오
- 의전부장 석명오
- 배구회회장 석도현

#### 교육원

- 교육원장 석월오
- 강원원장 석범오

#### 교구총무원

-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 중앙위원회

-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 중앙우물위원장 엄태일
-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 부산 제2 총무원

- 총무원장(직) 010-3565-2462
-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 해광사(팩스) 051)516-2461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해광사

####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 교육원 051)893-3346
-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운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http://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